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2호[2011. 12] : 161~188

고등학교 스페인어 문화교육 실태 연구

-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유 왕 무*
(Yoo, Wang-Moo)

<Abstract>

La Situación Actual de la Enseñanza de la Cultura en la Clase de Español de la Escuela Secundaria

El trabajo trata de revelar la situación actual de la enseñanza de la cultura en la clase de español de la escuela secundaria, enfocando, sobre todo, al análisis del texto escolar de español. Podríamos saber con el trabajo qué contenidos culturales presentan y qué elementos culturales faltan en el texto escolar de español. La enseñanza de la cultura es un tema muy importante en la enseñanza de lenguas extranjeras. Sin embargo, en nuestro país no se ha prestado mucha atención al componente cultural en la clase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Por lo tanto, los profesores de español, sobre todo los de la escuela secundaria, se enfrentan con muchas dificultades en el aula. Naturalmente, es necesario enseñar, en la clase de español, el componente cultural para ayudar a los estudiantes a conocer y sistematizar las claves culturales del mundo hispánico, con el cual ellos pueden desarrollar su competencia comunicativa, que es el objetivo principal de la enseñanza de español. De ahí surge la

* 배재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E-mail: wmyoo@pcu.ac.kr

importancia del contenido cultural del texto escolar de español. La cultura se refiere al papel del individuo en las distintas situaciones de la vida y a las reglas o modelos de actitud y a su conducta en ellas. Por eso, el texto escolar de español debe contener la cultura de la vida común y corriente, y los profesores de español deben enseñar la cultura tal y como se manifiesta a través del lenguaje y no en la forma en la que la estudian los científicos sociales o los etnólogos. El trabajo contribuirá a la escritura del nuevo texto escolar de español.

[Key Words: Cultura/ Enseñanza de la Cultura/ Texto Eescolar de Eespañol]
[주제어: 문화/ 문화교육/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

Ⅰ. 머리말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표 언어 사용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언어라는 것이 원래 사회,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해당 언어권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글로벌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외국인들과의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대가 되었기에 그들의 생활양식과 일상문화에 대한 이해는 더욱 필요한 가치가 된 것이다.

스페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교과서 집필의 토대가 된 '교육

부 고시 제 1997-15호 외국어과 교육과정(II)'에 따르면, 스페인어 교육의 목적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스페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교육부 1997, 187)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로 "스페인 및 중남미 국가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관습을 이해한다"(1997, 188)고 적시하고 있다. 스페인어로 성공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페인어의 언어규칙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규범에 대한 이해도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스페인어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의 문화를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상호 문화적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에 어떤 문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스페인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고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개정 교과서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찬 문화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독일어문학계와 프랑스어문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스페인어문학계에서는 이런 시도가 처음이라고 생각된다.[1)]

본고의 목적은 단순한 교과서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2011년에 개정될 교과서에 어떤 내용의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며 어떻게 기술되면 좋을지 고민해 보는 단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교육

1) 독일어학계와 프랑스어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독일어 교과서 분석 연구는 권오현(「문화와 외국어교육-고등학교 독일어 교육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제28집, 2003, pp.7-32)에 의해 이루어졌고,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과서 분석은 복성규(「고교의 프랑스 문화교육 실태 분석-제7차 교육과정 프랑스어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제23집, 2006, pp.81-107)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정상 스페인어를 가장 먼저 접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스페인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보다 충실한 교과서가 편찬되기를 바라며, 바로 이 점이 본고 집필의 동기이기도 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는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에 의거한 '7차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편찬되었다. 이 책은 2011년까지 사용하게 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새로 편찬될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새 책은 2011년 말까지 출판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2011개정교과교육과정'에 의거해서 2013년에 편찬될 교과서를 사용할 것이다. 지나치게 잦은 교과서 편찬 작업이 오히려 교과서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또한 교과서 편찬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짧은 집필 기간도 충실한 교과서 편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를 충실하게 만들 필요성은 고등학교 스페인어교육의 위기감과도 맞물려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고등학교에서의 스페인어교육 현실은 이런 현상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은 이미 중국어와 일본어의 기세에 밀려서 스페인어를 채택하는 고등학교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 풍토와 사회 현상이 맞물려서 나타난 작금의 현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 분명하다.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이 기존의 스페인어 교육 현장이라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수자 개인의 교수법 개발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목적에 맞도록 충실하게 만들어진 교과서 개발이 최우선적 필요 요소일 것이다. 그

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문화내용 면에서 좀 더 충실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Ⅱ. 외국어 교육과 문화

우리나라 외국어교육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6차 교육과정 부터이며, 교과서에 문화내용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은 7차 교육과정 부터이다. 외국어교육이 문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외국어는 외국문화 속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은 외국어 구사 능력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교육은 외국어교육을 위한 부차적인 영역이 아니라 중심영역으로 인식되어져야 하며, 지금까지 외국어교육의 중심이었던 언어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이성재, 1999, 451). 특히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능력의 제고에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의사소통은 타문화와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상대어 구사자의 발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어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에게 가능한 한 다양하고 많은 문화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외국어교육과 문화와의 상관성을 지적하며 외국어교육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문화의 개념과 층위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학자들은 많다.[2] 대표적으로 넬슨 브룩스는 문화의 개념을 “deep culture”와 “formal

2) 넬슨 브룩스는 문화를 culture1: 생물학적 성장, culture2: 개인적 기품, culture3: 문학과 예술, culture4: 일상생활의 패턴, culture5: 생활양식의 총체로 분류하였다(Paula R. Heusinkveld. ed. Pathways to culture, U.S.A.: Intercultural Press, 1997, p.22). 문화의 개념과 층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이봉지(1991). 「외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프랑스어문교육연구, 제1집, Louise Damen(1987). *Culture*

culture"로 구분하고, '생활문화'를 "deep culture"라 정의하고, 문학, 예술, 역사 등 소위 '고급문화'를 "formal culture"로 정의했다. 해멀리는 '정보 혹은 사실문화', '행태문화', '성취 혹은 수행문화' 세 가지로 분류한다.[3] '정보 혹은 사실문화'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간 계층의 화자들이 자신의 사회와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와 사실을 지칭하며, 외국어 학습자들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사회와 나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할 사항이다. '행태문화'는 대화형식 등 실질적인 행태로서 외국어 학습자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마지막으로 '성취 혹은 수행문화'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특수한 집단과 관계되는 것으로 문학, 예술 등 소위 고급문화가 이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문화의 개념과 층위 문제를 학술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외국어교육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우선 고등학교 교과서에 어떤 문화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고의 목표가 어떤 문화내용을, 어떻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의 개념과 층위의 문제에 관해서는 브룩스와 해멀리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외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방법론에 대해 꾸준히 천착해 온 이봉지의 의견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봉지는 '어떤 문화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로버트 갤리슨

---

learning: The fifth dimens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U.S.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J. Schumann(1978), "The acculturation model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R. Gingra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3) H. Hammerly(1982), *Synthesis in second language teaching.* N. Burnaby, B.C.: Second language Publications. Meena Singha(2002), *Teaching culture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Term paper of Doctoral Course. University of Arizona 에서 재인용.

의 ‘maximalism’과 ‘minimalism’론을 인용하며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이봉지, 1991, 44-45). ‘Maximalism’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소위 ‘고급문화’라고 불리는 문학이나 인문학을 중시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며, 외국인들도 교육받은 모국어 사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고급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Minimalism’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 자체에 대한 개념보다 외국인들이 배워야할 문화가 무엇인가를 더 중시하며, 외국인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을 모국어 사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고 보고 외국 문화습득을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이봉지는 이런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바람직 하느냐의 문제는 문화교육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문화교육을 외국어교육에 종속시켜 의사소통능력을 최우선으로 간주한다면 “일상적 문화가 의사소통에 본질적 역할을 하는 반면 고급문화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므로 외국어교육에서는 이런 일상적 문화의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이봉지, 1991, 45)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상문화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갤리슨의 “공유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공유문화는 한 사회의 전 계층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로 한 사회 구성원에게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요소이며, 공유언어와 함께 외국인과 모국어 사용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공유문화는 외국어 사용자들과 진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된다고 말하며, “외국어교육이란 틀 안에서 교수되어야 할 문화내용은 그것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의 과소를 기준으로 선택되어져야 하는데 대체로 일상적 문화, 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이며 또 여러 계층에 공통적인 것으로 그 사회 구성원의 80% 정도 이상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이봉지, 1991, 46)라고 결론 내린다.

교육부(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육과정에 “문화는 일상생활과 관련되며 의사소통기능의 활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다”(교육부 1997, 190)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문화’의 개념을 이봉지의 분석틀에 준해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렇다고 고급문화를 문화학습 내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고급문화라 할지라도 미술, 음악 등 단독교과목으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많을 뿐 아니라 이미 상식이 된 고급문화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은 화자의 소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기본 바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고급문화를 기술할 때는 미학이나 지식의 기준이 아니라 의사소통강화 역할을 기준으로 선별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를 지식의 영역으로 위치시킨다면 별도의 교과목으로 편성하거나 전통적인 언어교육 과목 등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고, 문화를 소재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면 언어기능을 가르치는 교과목의 소재로 다루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임상래 외, 2004, 142)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문화를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소재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화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보편타당한 정도의 인문학적 ‘고급문화’를 포함시켜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Ⅲ. 현행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내용 분석

현행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는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에 의해

작성된 '외국어과 교육과정(II)'에 의거해서 편찬되었다. 이에 따르면, "풍부한 자원과 광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최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확대는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교육부 1997, 187)하다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이해와 스페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페인어I' 과목은 "초보 학습자를 대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과정"(교육부 1997, 187)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어I' 과목은 "자신의 기본적인 생각과 느낌을 스페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동시에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의 일상생활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교육부 1997, 187)하는데 중점을 두며, '스페인어II' 과목은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화체 문장을 반복적으로 교수, 학습할 수 있도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심으로 구성하며, 동시에 스페인어권 문화의 이해와 우리 문화를 스페인어로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교육부 1997, 194)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스페인어I'과 '스페인어II'는 모두 외국어교육의 4대 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반면에 스페인어권 문화교육에 대한 언급은 매우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언어재료의 내용 중에서도 문화에 대한 언급은 매우 피상적이다. '스페인어I'의 문화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7, 190).

> 문화는 일상생활과 의사소통기능의 활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말로 설명한다.
> (가) 학교생활, 운동, 여행, 여가 선용 등에 관한 소재
> (나) 스페인어권 문화,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소재

‘스페인어II’의 문화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7, 197).

> 문화는 일상생활과 관련되며 의사소통기능의 활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다.
> (가) 역사, 문화, 지리, 환경, 학교생활, 운동, 여행, 여가 선용 등에 관한 소재
> (나) 우리 문화를 바르게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이외에 문화교육에 관한 언급은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부문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다. 문화교육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행 교과서에는 실제로 어떤 문화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는 1종이다. 프랑스어 교과서가 6종, 독일어 교과서가 8종임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 스페인어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또한 다른 외국어와 달리 교과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일 교과서라는 점이 바로 양질의 스페인어 교과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스페인어 교과서는 학습 수준에 맞추어 『El Español I』과 『El Español II』로 분류되어 있으니 우리가 분석대상으로 삼을 교과서는 모두 두 권인 셈이다(박 철, 이경희 2003a). 본고에서는 편의상 언어문화, 일상문화, 예술문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언어문화

구체적인 언어문화 분석에 앞서 우선 우리가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과서 구성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교과서는 I권과 II권 모두 각 단원마다 크게 9개의 기본 항목으로 이루어졌고, 각 항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I, II권 각 단원의 9개 기본항목과 주요 학습 내용, 항목별 할당 쪽수는 다음과 같다.

기본항목	주요학습내용	쪽수	
		I권	II권
① 학습목표 및 의사소통구문	학습목표와 의사소통기능 예시	1	1
② Palabras nuevas	새로운 어휘의 뜻 익히기	1	1
③ Vamos a escuchar	테이프로 반복적 듣기 연습	2	2
④ Vamos a leer	읽으면서 발음과 억양 학습	1	2
⑤ Vamos a hablar	짝과 함께 대화 연습	1	1
⑥ Vamos a escribir	받아쓰기로 정확한 단어와 문장 쓰기연습	1	2
⑦ 단원정리	의사소통기능예시문, 문법 이해	2	2
⑧ Ejercicios	네 가지 언어 기능 반복 연습	2	2
⑨ Pasatiempo	문화 익히기, 놀이로 스페인어 배우기	1	1
계		12	14

『El Español I』은 총 12단원으로 구성되었고, 사용 어휘 수는 530단어에 달한다(박 철・이경희, 2003b, 22), 『El Español II』는 총 11단원으로 구성되었고, 사용 어휘 수는 I권보다 300개가 많은 830개에 달한다(박 철・이경희, 2003b, 21). I권은 단원 당 12쪽, II권은 단원 당 14쪽을 할당하고 있으며, 항목별 할당 쪽수는 위 표와 같다. I권에서는 네 가지 언어기능 중 듣기 부분에만 두 쪽을 할애하고 있는데, 원어민이 녹음한 테이프를 이용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어민의 발음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들에게 더 많이 부여하려는 배려로 보인다. 스페인어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학습자들의 문법 정리를 위해 마련한 <단원정리>와, 네 가지 언어 기능을 모두 연습할 수 있는 <Ejercicios>항목에 각각 2쪽씩

을 할당한 것도 적절한 배분이라 판단된다. II권에서는 I권에 비해 읽기와 쓰기에 한 쪽씩을 더 할애한 것이 특징이다.

이 장에서 분석할 언어문화는 엄밀히 말해서 언어학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기능 분석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교과서 각 단원의 첫 페이지에 나타난 학습목표와 이를 성취하고자 제시된 의사소통 구문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스페인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스페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교육부 1997, 187)을 배양하는 데 있는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 사용 방식을 습득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각 단원에서 제시하는 의사소통 구문은 스페인어에서 가장 독특한 표현방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며, 학습자는 이를 통해 스페인어 특유의 언어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1과의 '만날 때 인사', '헤어질 때 인사', '감사'와 2과의 '이름 말하기', '출신 말하기' 등이 구체적인 의사소통기능이며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스페인어 특유의 언어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사소통기능이 곧 언어문화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El Español I』 각 단원의 첫 페이지에 '의사소통기능'이라고 제시된 언어문화 유형은 29가지다. 즉 한 단원 당 2-3가지의 의사소통기능이 제시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II권에서는 의사소통기능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 있다. II권에는 모두 19개의 유형이 소개되어 있으니 한 단원 당 2개가 채 못 되는 언어문화 유형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4] I

4) '외국어과 교육과정(II)'(1997)상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에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은 대인 관계적 기능 12개(만날 때 인사/작별인사/이름묻기/소개/초대/감사/사과/기원·축하·격려/전화받기/긍정대답/부정대답/반복의 요구), 상황 설명적 기능 8개(사람 묘사/사물묘사/신체상태/길 묻기/장소설명/시간/날씨/물건사기), 감정의 표현 15개(견해나 의견/개연성·가능성·의심/의무/동의·반대/옳고 그름의 판단/호·불호/

권에서는 현재형만을 다루고 있고, II권에서는 과거와 미래, 현재완료 등 나머지 문법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II권에서는 현재형을 제외한 시제 익히기에 중점을 두어, 설명적 기능(현재사실이나 상화, 과거 사실이나 상황, 미래 사실이나 상황)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I권보다 적은 수의 언어문화 유형이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제시된 언어문화 유형은 각 단원에서 <학습목표 및 의사소통기능>과 <Pasatiempo>를 제외한 7개 항목에서 네 가지 언어기능 모두를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단원 첫 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사소통기능이 과연 본문에서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단원에서는 학습목표로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이 본문에서도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 단원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I권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6과 첫 페이지에는 '시간'의 표현과 '놀라움'의 표현 두 가지 의사소통기능이 제시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기능 모두가 시간의 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놀라움의 표현은 본문 대화중에 단 한번 등장할 뿐이다. 시계가 멈췄다는 표현을 할 때 '이런!'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Vaya!가 그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에 나타난 놀라움의 표현은 ¡Vaya!외에도 ¡Dios mío! ¿En serio? 가 있다. 동일한 단원에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이 동일한 표현의 의사소통기능을 비교해가면서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7과에서도 나타난다. '축하'의 의사소통기능 ¡Felicidades!가 생

보다 좋아하는 것/비교/의도/기쁨/슬픔·놀라움/감탄/관심·무관심/분노), 지시적 기능 9개(조언/명령/금지/주의/제안/도움의 제안/약속/안심시키기/허락), 설명적 기능 4개(원인과 결과/현재사실이나 상황/과거사실이나 상황/미래사실이나 상황)로, 총 48개다.

일축하 표현에서 단 한번 등장할 뿐인데, 똑같은 표현이라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8과에서는 '날씨표현', '동의', '유감'의 의사소통기능 학습을 목표로 한다. 본문 내용은 날씨에 관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 날씨와 계절에 관한 표현이 다양하다보니 지루하지 않은 내용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 'Lo siento'는 단 한번 나올 뿐이고, '동의'의 표현은 아예 보이질 않는다. 단원 첫 페이지에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이 정작 본문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사를 해보니 '동의'의 표현인 'Vale'와 'De acuerdo'는 그 전 단원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즉, 'De acuerdo'는 이미 6과에 등장하였고, 7과에서도 'Vale'와 'De acuerdo' 모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이전 단원에서 사용된 바 있는 의사소통기능을 뒤 단원에서 학습목표로 정하고 정작 본문에서는 이를 기술조차 하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일관성 부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에게 의사소통기능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재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교재 편찬에 앞서 충분한 연구시간이 부족했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외국어와 달리 스페인어 교과서는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책이 유일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사소통기능의 배치 문제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안에 포함된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에 나타난 것 중 매우 기초적인 의사소통기능이 II권에 배치되어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시수 부족

으로 졸업 시까지 겨우 I권만을 학습하기 때문에 사실상 II권에 배치된 매우 기본적인 의사소통기능을 학습할 기회가 없다. II권에 제시된 기본적인 의사소통기능 중 I권에 배치되어야 할 것들로는 '물건사기'(3단원), '건강에 대한 표현'(5단원), '길 묻기'(10단원)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I권에서 학습을 해야 마땅한 것들이다. 실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항상 출제되는 언어문화 항목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II권에서 이 의사소통기능들만을 따로 떼어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교과서 편찬 시에는 이 점을 보완하여 보다 일관성 있고 알찬 내용의 교과서가 개발되기를 바란다.

2. 일상문화

현행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에는 문화만을 다루는 항목이 따로 없다. 기존 항목 사이사이에서 조금씩 다룰 뿐이다. I권과 II권을 비교해보면 II권에서는 일상문화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별첨1, 별첨2 참조). II권 11개 단원 중 4개 단원에서만 일상문화가 등장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I권에 일상문화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I권 전체 12개 단원 중에서 일상문화를 조금이나마 다루고 있는 것은 9개 단원 뿐이다. 그 중 문화내용을 따로 떼어 설명하고 있는 단원은 1과와 7과 뿐이다.

I권의 1과에서는 <Pasatiempo>항목 마지막 부분에 <일러두기> 코너를 마련하여 스페인의 작별 인사법(dos besos)에 대해 3줄 정도 한글로 설명하고 있다. 7과에서는 <단원정리>항목 마지막에 <일러두기> 코너에 발렌시아 축제, 부활절 축제, 산페르민 축제, 세비야 축제 사진 네 장이 등장하나 사진제목만 있을 뿐 사진에 대한 일체의 설명은 없다. 그나마도 일상문화가 아니라 예술문화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일부 단원에서 <일

러두기> 코너를 만들어 문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려는 의도는 엿보이나 배치 항목에 대한 일관성도 없거니와 숫자도 2개 단원에 그치고 있다.

반면 II권에서는 1, 6, 10단원의 <단원정리>항목 마지막에 <문화>란이 있다. 1단원에서는 "스페인과 중남미에서 2개의 성(姓)을 쓴다. 첫 번 째 성은 아버지 것이고, 두 번째 성은 어머니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문 대화에서 실질적인 예를 들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6단원에서는 예술문화에 속하는 피카소의 '게르니카' 그림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5줄 정도의 한글 설명과 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0단원에서는 스페인의 주소기입방법 및 집 찾는 방법에 대해 한글로 3줄 정도 설명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실제 지도와 함께 주소 및 집 찾기 등의 대화가 나와서 학생들이 실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교통표지판도 <쓰기>항목에서 연습하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II권의 1단원과 10단원에서는, 학습목표로 하는 의사소통기능과 소재문화인 일상문화의 내용이 여러 활동 영역에서 연계해서 반복적이며 유기적으로 섞여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언어문화, 즉 의사소통기능과 일상문화를 서로 분리시켜 인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유기적인 요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문화, 즉 의사소통기능과 일상문화의 연계성이 높은 부분은 I권의 7과와 10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7과에서는 <Pasatiempo>에 생일 축하 노래가 스페인어로 실려 있어서 본문의 '축하'에 해당하는 의사소통기능과 잘 어우러지고 순환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0과에서는 '초대하기'라는 의사소통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스페인의 대표적인 음식 5개의 사진이 실려 있고 <일러두기>에서 그 중 3개 음식의 요리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호기심 자극과 사실성 유지를 위한 좋은 구성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스페인 사람들의 식사문화가 스페인어로 소개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I권에서는 10단원이 언어문화와 일상문화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단원이라고 생각된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단원에서는 의사소통기능의 활용과 일상문화와의 연계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I, II권을 합하여 총 23개 단원 중에서 6개 단원에서만 연계성이 있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문화와 일상문화가 별개로 작용하는 비효율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문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제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다. I권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가족관계, 인사법, 스페인어 이름구성, 각종 기념일, 생활속담, 생일축하 노래, 제스추어, 스페인 음식, 식사문화 등이다. 의·식·주 중에서 음식 문화가 유일하게 소개된 것이다. 그 외에 기본적 의사소통을 위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지도에서 찾아보는 연습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다. II권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상문화가 제시된 4단원 중 성(姓)과 집 찾기를 다룬 2개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의 내용은 1권과 중복되는 내용이다. 즉, 2단원의 스페인어 사용국, 스페인 축제,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수도 찾기 등은 I권의 2, 5, 7단원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을 지도에서 찾는 방식의 기술방식이 여러 번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있다. 이런 분석은 결국 향후 신 교과서 편찬 시 집필자들의 치밀한 계획과 집중력이 왜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 예술문화

현행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에 나타난 예술문화는 매우 빈약하다. I, II권 총 23단원 중에서 I권에 5단원, II권에 4단원 총 9단원에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빈약함의 정도는 더 심해진다.

I권의 경우를 보자. 1단원에서는 <Pasatiempo>에 알람브라, 성가족 성당, 착몰, 카라콜 사진 4개만 덩그러니 실려 있는 것이 전부다. 어떠한 설명이나 사진 제목도 없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오롯이 교수자의 몫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2단원에 실린 피카소, 후안 카를로스 1세, 플라시도 도밍고, 세르반테스의 사진은 그들을 문화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아니다. '국적 묻고 답하기'의 '연습문제' 중 하나로 제시된 이 문제에는 각 분야의 동서양 인물 12명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이 네 명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그들의 이름이나 설명이 기술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7단원에는 스페인의 축제(발렌시아 축제, 부활절 축제, 산페르민 축제, 세비야 축제) 사진이 <단원정리> 마지막 부분에 <일러두기>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사진에는 축제 이름이 명기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최소한 축제 이름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나마 6단원에서는 세르반테스의 사진과 함께 한글 설명이 10줄 정도 들어가 있어서 학습자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II권에서는 예술문화의 소개 방식이 달라진다. 과거와 미래 시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독해 형식으로 소개한다. 6과에서는 <Vamos a leer>항목에서 피카소와 게르니카, 가우디, 멘추에 대한 소개 글을 제시한다. 1쪽을 모두 할애하여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게다가 <Vamos a escribir>에서는 독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쓰기연습을 통해 다시 살피는 순환학습의 기회도 가지고 있다. 이런 유형은 7단원과 8단원에서도 나타난다. 7단원에서는 콜럼버스의 신대륙발

견을, 8단원에서는 바르셀로나에 대한 설명을 <Vamos a leer>에서 다루고 있다. 학생들의 독해능력 향상과 함께 예술문화 소개라는 두 가지 목적을 잘 달성한 구성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구성이 몇 단원에서만 제시된 것이 아쉽다.

그러나 I권 II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 언어문화인 의사소통기능과 예술문화와의 연계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I권에서는 인물과 축제 관련 사진 몇 장 제시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예술문화에 대한 취급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문화 대부분이 스페인 예술 소개에 치우쳤다는 점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교과서에 라틴아메리카 문화는 없다. 물론 스페인의 예술세계가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은 것은 이해하겠지만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 대한 소개에도 지면을 할애하여 균형 있게 기술해야 할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활약하게 될 무대가 스페인보다는 라틴 아메리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라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시기이니 만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예술분야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역사와 고대문명은 물론 문학, 음악, 춤, 미술, 건축, 연극, 영화 등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Ⅳ.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서론에서 밝혔다시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는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에 의거한 '7차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편

찬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새 교과서 제작의 준거가 되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특히 문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언어문화를 구성하는 의사소통기능 표현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기능예시문'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기본표현'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 7차 교육과정에서는 상황 모델을 3단계(예: 대인 관계적 기능→사회 활동적 기능→인사)로 나누고, 그 기본표현도 199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상황 모델 제시 방법을 2단계로(예: 대인 관계적 표현→만날 때 인사) 단순화하고, 총 260개의 기본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07b, 144).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 교육의 강화에 있다.[5] 스페인어는 사용 국가가 많은 만큼이나 다양한 문화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일상생활문화 교육을 강조한다. 『스페인어 I』 교과서에 수록할 문화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07a, 10).

> (1)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의 일상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아래에 제시된 내용은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다.
> ㈎ 인사와 소개에 관한 내용: 소개 방식, 바른 호칭법 등
> ㈏ 기본적인 감정 및 견해 표현에 관한 내용: 동의 및 반대 표

5) 권오현은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문화를 지나치게 부각시킨 '과대한 배려'가 역으로 문화의 비중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별도의 항목이 아닐 때는 소재 차원에서 모든 사실들이 거론될 수 있던 반면에, 문화의 항목화는 지식의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거나, 관심을 특정 영역으로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권오현. op.cit., pp.8-9).

시, 좋고 싫음 표시, 감사 및 유감 표시, 자신의 견해 표현 등
㈐ 사회생활 및 예절에 관한 내용: 시간 준수, 선물, 의복, 식사, 대화·행위 규범 및 금기, 방문 시간, 작별 방식 등
㈑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 교육 제도, 친구, 교사와 학생 관계, 동아리 활동 등
㈒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 가족 구조 및 관계, 가족 내 의사소통 등
㈓ 통신에 관한 내용: 전화, 편지, 전자 우편 등
㈔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여가 활동, 운동, 춤, 음악, 독서, 컴퓨터 게임, 여행 등
㈕ 의식주 생활에 관한 내용

(2)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지리, 사회, 경제, 문화유산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스페인 어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의사소통 상황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 아래에 제시한 내용은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다.
㈎ 사회적 문화에 관한 내용: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교통 등
㈏ 환경적 문화에 관한 내용: 자연환경, 자연관 등
㈐ 문명적 문화에 관한 내용: 유적, 음악, 연극, 미술, 축제 등

III장에 제시된 '7차 교육과정'의 지침과 비교하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문화를 크게 (1)의 생활문화와 (2)의 지역학적 문화[6]로 분류하고 있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많기는 하지만 일상생활문화는 공통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지역학적 문화는 각 나라마다 역사, 지리,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성보다는

6) 지역학적 문화의 개념은 인문적 문화 개념보다 확대된 문화 개념으로, 예술적 표현 혹은 정신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적 범위를 벗어나 정치, 경제, 법률, 지리, 종교, 예술, 윤리, 학문,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외국어교육에서는 해당 언어 사용국가에 대한 사실적 지식과 생활 정보 모두 문화로 간주된다(권오현. op.cit., pp.11-12).

특수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어 I』에서는 (1)의 (가)~(아)까지 열거된 일상생활문화를 먼저 포함시켜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인 문화내용일지라도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임을 고려하여, 이 목적에 부합되는 문화내용을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어 II』에서 소개할 문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07a, 21).

> (1)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의 일상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여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스페인 어 I'의 내용을 심화한다.
> (2)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지리, 사회, 경제, 문화유산 등을 어느 정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스페인 어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의사소통 상황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정한다. 아래 제시한 내용은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다.
> ㈎ 사회적 문화에 관한 내용: 복지, 사회 계층, 민족성, 가치관 등
> ㈏ 환경적 문화에 관한 내용: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관 등
> ㈐ 문명적 문화에 관한 내용: 유적, 음악, 연극, 미술, 축제 등의 예술적 문화

『스페인어 II』에서도 역시 생활문화와 지역학적 문화를 소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문화는 학생들의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페인어 I』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룰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내용도 복지, 사회계층, 민족성, 가치관 등 스페인어권 전체의 보편성보다는 각 국가별 특징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I권과 II권에서 다루는 생활문화와 지역학적 문화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어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능력 강화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생활문화 부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활문화가 의사소통과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종의 '고급문화'에 속하는 지역학적 문화에 대한 학습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양 쪽의 적절한 균형적 배분이 필요하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스페인어 I』에서는 생활문화와 지역학적 문화의 비율을 7:3 또는 6:4 정도로,『스페인어 II』에서는 생활문화와 지역학적 문화의 비율을 3:7 또는 4:6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2007b, 146). 그러나 이 비율을 도식적으로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집필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작용할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페인어 문화를 처음 접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I, II권 모두 타 과목에서 학습할 수 있는 지역학적 문화는 가급적 자제하고 보편적이면서도 특이한 스페인어권 생활문화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Ⅴ. 맺음말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있는 나라는 매우 많다. 그만큼 문화의 내용도 다양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의 문화를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문화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권 국가들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문화내용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활문화가 바로 우선적인 학습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를 안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

이다. 새로운 교과서에 충실한 문화내용이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결론 삼아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해 본다.

현행 교과서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일상문화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문화영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광범위한 주제 발굴과 함께 그것을 체계적으로 편성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단원별로 <문화> 항목을 별도로 배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집필자들은 학생들의 학습욕구와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일상문화의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필요성과 지적 수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의 내용은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신세대의 특성에 맞는 대중문화로의 접근도 시도해 볼만하다고 판단된다.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현행 교과서에는 스페인 문화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교과서에서 보이질 않는다. 집필자의 개인적 수학 경험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집필진 구성 시부터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고루 구성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어휘, 의사소통 표현, 문화 지식 등을 교과서에서 비교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용의 제시 방법도 관련 내용을 글로만 기술하는 것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자칫 학생들에게 답답하고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만화기법이나 사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사진과 만화를 합성하는 새로운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신세대의 특징을 감안한 다양한 기술방법 개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교과서가 지루해지는 것은 교육과정 탓이라기보다는, 집필진이 학습자의 눈높이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탓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집필진의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언어표현과 관련된 소재영역의 의사소통 표현들은 적절한 맥락 안에서 활용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학습자는 특정한 소재영역과 관련된 적합한 표현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쉽고 간단한 스페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며, 스페인 및 중남미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관심"(교육부 2007a, 5-6)을 가지게 한다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선정 시에는 가능하면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 사이에 비교가 가능한 것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문화의 보편성과 상대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 비교를 통해 한편으로는 우리 것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다른 한편으로는 타문화에 대한 관용을 증진하도록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세계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1997),「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14) 외국어과 교육과정(II)」.

_____(2007a),「고등학교 외국어과 교육과정(스페인어)」.

_____(2007b),「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스페인어)」.

권오현(2003),「문화와 외국어교육-고등학교 독일어 교육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제28집, pp.7-32.

박 철 · 이경희(2003a).『El Español I』,『El Español II』, 진명출판사.

_____(2003b),『스페인어 I』,『스페인어 II』교사용지도서, 진명출판사.

복성규(2006),「고교의 프랑스 문화교육 실태 분석-제7차 교육과정 프랑스어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제23집, pp.81-107.

임상래·김우성·유왕무(2004),「스페인어교육과 문화, 그 범주와 방법론 모색」, 스페인어문학, 33호, pp.138-140.

이봉지(1991),「외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프랑스어문교육연구, 제1집, pp.40-52.

_____(1998),「대학에서의 프랑스 문화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프랑스어문교육, 제6집, pp.25-45.

정현선(1997),「'문화교육'이라는 문제 설정 II」, 국어교육연구, 제4집, 서울대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pp.235-249.

J. Schumann(1978), "The acculturation model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R. Gingra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Louise Damen(1987), *Culture learning: The fifth dimens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U.S.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Meena Singhal(2002), *"Teaching culture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Term paper of Doctoral Course. University of Arizona.

Paula R. Heusinkveld(1997), ed. *Pathways to culture*, U.S.A.: Intercultural Press.

▌논문투고일자: 2011년 9월 27일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2월 14일

<별첨1> El Español I

	언어문화(의사소통기능)	일상문화	예술문화
Lección 1	1. 만날 때 인사 2. 헤어질 때 인사 3. 감사	1. dos besos	1. 알람브라, 성가족성당, 착몰, 카라콜 사진
Lección 2	1. 이름 말하기 2. 출신 말하기	1. 스페인어 사용국과 사용 인구 2. 스페인 이름	1. 피카소, 후안 카를로스 1세, 플라시도 도밍고, 세르반테스의 사진
Lección 3	1. 사람에 대한 소개 2. 사람에 대한 묘사	1. 가족관계	
Lección 4	1. 장소에 대한 설명 2. 사물에 대한 설명	1. 유럽의 국가와 도시	
Lección 5	1. 현재의 사실 2. 반복의 요구	1. 중남미 국가 지도에서 찾기	
Lección 6	1. 시간 2. 놀라움	1. 각 도시의 시차 2. 생활속담	1. 세르반테스에 대한 설명
Lección 7	1. 요일 2. 날짜 3. 축하	1. 각종 기념일 2. 스페인어 생일축하 노래	1. 스페인의 축제 사진(발렌시아, 부활절, 산페르민, 세비야축제)
Lección 8	1. 날씨에 관한 표현 2. 동의 3. 유감		
Lección 9	1. 전화하기 2. 만날 약속 3. 현재진행형	1. 스페인의 제스추어	1. 프라도 미술관 사진
Lección 10	1. 초대하기 2. 부탁하기	1. 메뉴(음식점) 2. 스페인의 음식(paella, tortilla, gazpacho, jamón) 3. 스페인의 식사문화	
Lección 11	1.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2. 좋아하지 않는 것 표현하기 3. 더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Lección 12	1. 현재사실이나 상황 2. 의무 3. 원인과 결과		

<별첨2> El Español II

	언어문화	일상문화	예술문화
Lección 1	1. 사람에 대한 소개 2. 자신에 대한 소개	1. 스페인과 중남미의 성(姓)	
Lección 2	1. 장소에 대한 설명 2. 현재 사실이나 상황	1. 스페인의 위치 및 개요 2. 스페인어 사용국 3. 스페인의 축제	
Lección 3	1. 비교 3. 물건 사기		
Lección 4	1. 부탁 표현 2. 명령 표현		
Lección 5	1. 건강에 대한 표현 2. 조언 표현		
Lección 6	1. 과거 사실		1. 피카소와 게르니카 2. 가우디 3. 멘추
Lección 7	1. 과거 사실 2. 과거 상황		1.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
Lección 8	1. 놀라움 2. 관심과 무관심		1. 성가족성당, 그라나다, 왕궁 사진 2. 바르셀로나 사진
Lección 9	1. 미래의 사실이나 상황 2. 상황		
Lección 10	1. 길 묻기 2. 도움 제안	1. 스페인 도시 지도 2. 스페인의 주소 및 집 찾기 3. 교통표지판	
Lección 11	1. 가능성 표현	1. 중남미 각 나라의 수도	1.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 2. 피카소와 게르니카 3. 가우디와 성가족성당 4. 콜럼부스와 신대륙 발견